

모호한 상실의 측정: 북한이탈주민 경계모호성 척도(BAS-NK)의 예비 타당화 연구*

김 경 아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해 온 경계모호성 척도(Boundary Ambiguity Scale; BAS)를 토대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계모호성 척도(이하 BAS-NK)를 예비 타당화하였다. 먼저 원척도를 국문으로 번안 및 수정한 후, 모호한 상실 상황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녀(102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의 사전조사를 통해 번안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본조사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북한이탈여성(100명)을 새롭게 표집하여 일대일, 면대면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문항을 선별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15문항으로 선별된 BAS-NK는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요인구조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제안되었다(요인1: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요인2: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BAS-NK 총점은 유관 개념인 우울, 복합비에, 지속유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BAS-NK의 두 하위요인은 우울, 복합비에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관계성을 보임으로써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을 모호한 상실로 조망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일차적인 도구로서 BAS-NK를 예비 타당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모호한 상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경계모호성 척도(BAS-NK), 척도 타당화, 요인분석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19학년도 성균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S-2019-2701-000).

자료분석에 도움을 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이슬 선생님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 교신저자: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Copyright ©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990년대 후반부터 2022년 6월 시점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인구는 약 33,834명으로 집계된다(Ministry of Unification, 2022). 현재의 분단체제 하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탈북을 감행하는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일이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탈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Jung & Choi, 2017). 실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가족이산의 맥락을 살아가게 되는데(Yoon et al., 2007), 이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남한 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며 이후 적응 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사건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가족과의 이별을 보고한 비율은 65~69%에 이른다(Kim et al., 2010; Kim & Jung, 2012). 이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강제복송의 위협 등을 외상으로 보고한 비율보다 높고(Kim et al., 2010),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외상 경험보다도 높은 수치이다(Kim & Jung, 2012). 즉,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관계 상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했던 긴박한 순간이나 사별로 인한 상실보다도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은 자신의 탈북이 남은 가족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사를 명확하게 알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고통감을 야기한다. 또한 탈북 이후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가족과 모두 남한에서 재결합하기까지도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처 방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별이 지속되게 된다(Jung et al., 2013; Cho, 2012). 이처럼 생사와 안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살아있음에도 언제

다시 만날지를 기약할 수 없는 불명확한 이별 상황은 사별 상실과는 다른 측면으로 상실의 고통감을 가중시킨다.

기존 연구는 가족 간 이별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선행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해왔지만(Cho & Jeon, 2005; Cho & Choi, 2013), 이를 사별 상실과 구분되는 또 다른 상실 맥락으로 주목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은 불명확하게 지속되는 상실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사별 상실처럼 대상에 대한 부재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맥락으로 난민의 가족 상실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모호한 상실(ambiguous loss)’로 조망한 바 있다(Miller et al., 2018). 이들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상실감 및 부재감 뿐 아니라 가족 안전에 대한 걱정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며, 생존해있어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무력감을 경험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은 이러한 난민의 가족 상실 경험과도 중요한 측면을 공유한다.

모호한 상실 이론(Ambiguous Loss Theory; ALT)에 따르면, 상실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대상의 존재함(비상실)과 부재함(상실)이 모순되는 상황을 모호한 상실로 명명하며 상실의 속성에 따라 이를 물리적인 모호한 상실(physical ambiguous loss) 또는 심리적인 모호한 상실(psychological ambiguous loss)로 구분한다(Boss, 1999; 2004). 모호함(ambiguity)은 상실에 대한 의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서전적 경험에 통합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애도를 저해한다(Boss, 2017; Huang & Habermas, 2019). 통합되지 못한 상실은 만성적인 과각성 및 불안감, 불안정 애착, 지속

비에, 우울 증상 등 복합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하며(Baraković et al., 2013; Boss, 2010; Boss et al., 2011), 상실 이후의 부적응적인 결과를 야기한다(Boss, 1999; 201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은 가족의 물리적 부재와 심리적 존재가 역설적으로 공존하는 맥락이므로 물리적인 모호한 상실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과 심리적 경험을 탐색한 질적연구를 시작으로(Kim et al., 2019; Kim & Yi, 2017), 모호한 상실이 개인의 우울 및 양육맥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한 양적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Kim & Chang, 2020). 이 중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을 척도로 측정된 양적연구는 단 한 편이며, 이 조차도 해외의 경계모호성 척도를 번안하여 수정한 형태로만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었다(Kim & Chang, 2020). 기존 연구는 해외 원척도의 요인구조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번안 및 수정한 각 문항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타당하지 확인하는 작업이 부재하였음을 한계점으로 기술하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의 필요성은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lieszner et al., 2007; Boss, 2007; Carroll et al., 2007). 현재까지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측정도구는 ‘경계모호성 척도’이다(Boundary Ambiguity Scale; BAS; Boss, 1977; Boss & Greenberg, 1984; Boss et al., 1990). 경계모호성(boundary ambiguity)은 특정 가족 구성원이 가족 체계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그 경계가 모호하게 지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Boss et al.,

1990; Carroll et al., 2007). 이는 사별 상실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실 맥락에서 지각될 수 있는 것으로, 상실 이후의 무망감, 대처의 어려움, 애도 과정의 지연 등 여러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해왔다. 마찬가지로 모호한 상실 연구에서도 경계모호성은 모호한 상실감의 양적 측정치로서 상실의 부정적인 결과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고려된다(Boss, 2006; Boss et al., 2016).

경계모호성 척도는 상실의 종류에 따라 여섯 가지 버전¹⁾으로 나뉘며, 각 척도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상실 대상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측정된 경계모호성의 점수가 높으면, 지각된 모호한 상실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를 .70대로 보고해왔으며(Boss et al., 1990),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에 해당한다(Knapp, 1991). 구성타당도는 경계모호성 수준과 개인 및 가족의 역기능 수준 간 상관을 토대로 하였고, 초기 연구에서 .20~.30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 계수가 보고된 바 있다(Boss et al., 1990).

선행연구는 각 상실 유형에 적합한 버전의 척도를 선택한 후 원저자의 허락 하에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해왔으며(예: Blackburn et al., 1987; Dekel et al., 2016; Kaplan et al.,

1) BAS의 6가지 버전은 다음과 같다(Boss et al., 1990): 척도1(For Wives of Men Declared Missing-in-Action), 척도2(For Widows), 척도3(For Parents of Adolescents Leaving Home), 척도4(For Adolescent and Adult Children of Divorce), 척도5(For Divorced Adults), 척도6(For Caregivers of Patients with Dementia).

2015; Mu et al., 2001), 일부 연구는 원칙도의 여러 버전에서 필요한 문항만을 조합하여 연구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Mu et al., 2005; Mu & Chang, 2010). 수정된 각 버전들은 여러 상실 맥락에서 모호한 상실감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이 주제에 대한 장래 연구의 확장 및 임상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Berge & Holm, 2007; Dekel et al., 2016; O'Brien, 2007; Peterson & Christensen, 2002).

그러나 경계모호성 척도는 1990년대에 개발된 초기 버전이며 심리측정적인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주요 개념으로 정립되어왔지만 척도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아직 미흡한 단계로 거론되어 왔는데, 특히, 개념의 이론적인 정의와 이를 측정하는 척도의 일부 문항 간 불일치성에 대한 비판은 향후 경계모호성 척도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점 중 하나이다(Carroll et al., 2007). 구체적으로, 척도의 일부 문항에 '죄책감', '무능력감', '정서적인 각성', '외로움', '괴로움'과 같은 정서적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경계모호성의 정의를 고려할 때 지각적 측면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항들로 인해 경계모호성과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경계모호성 척도를 정서 반응이 포함된 하위요인(distress-laden items)과 지각적 모호함에 관한 비정서적인 하위요인(ambiguity-laden items)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가 존재하지만(Caron et al., 1999), 후속적인 경험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Carroll 등(2007)은 경계모호성 척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정서적 표현을 중립적인 진술문으로 대체하거나 분석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반응 자체가 모호한 상실감을 구성하는 한 측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모호한 상실감에 속한 정서적 반응은 이후의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와 구분되는 또 다른 현상일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칙도에서 정서 반응이 포함된 문항을 제거하는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요인분석을 통해 본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단일요인이 아닐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모호한 상실감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이 상실 후 우울 또는 부적응적 비애 반응에 고유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여 각각이 구분되는 현상임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 국내에서는 모호한 상실에 대한 연구가 드물고 경계모호성으로 측정된 모호한 상실감 개념도 생소한 실정이다. 모호한 상실은 사별처럼 명료한 상실이 중심이었던 기존 상실 문헌에서 존재와 부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실 문헌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관 개념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우울은 대표적으로 보고되는 심리적 반응이다(Boss et al., 1990; Boss & Couden, 2002; Kaplan & Boss, 1999; Mu et al., 2005; Thomas et al., & Léger, 2001). 그 중에서도 물리적인 모호한 상실에 속하는 실종자 가족에게서 우울 반응이 주되게 보고되어 왔고(Baraković et al., 2013; Boss, 1977; Boss, 1980),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하게 가족 상실 및 가족 해체를 경험한 이민자, 난민 관련 연구에서

도 우울은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고려되었다(Seglem et al., 2011). 이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지각된 경계모호성은 우울과 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복합비에(complicated grief)는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보고되는 또 다른 주요 심리적 경험이다(LeBlanc et al., 2019). 복합비에란 고인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실의 충격이 대인관계 및 주요 영역 기능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조절하는 것에 곤란을 겪는 상태로 정의된다(Jeoung, 2015; Prigerson et al., 2009). 핵심증상으로 고인에 대한 갈망, 슬픔, 침습적 사고 등 대상이 더 이상 실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리 스트레스(separation distress)와 강렬한 분노감, 정서적 무감각, 상실 관련 자극에 대한 과도한 회피 또는 추구 행동, 사회적 기능 손상과 같은 역기능성(dysfunctionality)으로 구분된다(Shear et al., 2011). 모호한 상실은 감정 명료화 및 애도의 어려움, 복잡성 및 지속성의 특징을 수반하므로 복합비에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oss, 2010; Boss & Yeats, 2014; Hollander, 2016). 따라서 우울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지각된 경계모호성은 복합비에와 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상실 관련 개념 중 대상과의 관계적 측면을 반영하는 지속유대(contiuing bonds)는 고인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근접성을 추구함으로써 유대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Stroebe & Schut, 2005).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기존 연구에서는 물리적으로 부재하는 가족에 대한 내적 표상을 생성함으로써 심리적 세계에서 재회하고 공존할 수 있으며 이는 상실

후 적응적 결과를 이끈다는 것을 탐색한 바 있다(Kim et al., 2019). 모호한 상실감과 지속 유대는 물리적으로 부재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인 유사성이 있고 따라서 지각된 경계모호성과 지속유대의 정적 상관관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또한, 부정적 비애인지(negative grief cognitions)는 상실 후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지적 변인으로서, 상실 이후 형성된 자기, 타인, 세상, 미래에 관한 부정적인 신념과 여러 인지적인 반응 양상을 포함한다(Boelen et al., 2003). 상실 이후 형성된 전반적인 부정적 신념과 비애에 대한 오해석(negative global beliefs and misinterpretations of grief reactions)은 복합비에 및 우울을 예측하는 핵심 기제로 고려된 바 있으며(Boelen et al., 2006) 그 중에서 특히 자기비난(self-blame)은 사별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부적응적 비애 반응을 예측하는 인지적 변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Field & Bonanno, 2001). 이는 상실 그 자체보다도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는가가 상실 후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정적 비애 인지는 사별 상실 외에 실종과 같은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지속비에, 외상후스트레스, 주요우울장애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Lenferink et al., 2018; Lenferink et al., 2016). 경계모호성과 부정적 비애인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핀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하지만, 선행연구를 토대로 두 개념 모두 상실을 수용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각적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계모호성과 부정적 비애인지의 정적 상관관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두 개념 간 관계에서 경계모호성이 부정적 비

애인지 중 어떠한 하위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면 향후 경계모호성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호함 감내력(tolerance of ambiguity)은 ‘알 수 없는 상태(not knowing)’에 대한 모호함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때 모호함은 맥락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어 불명확하게 지각되는 상태로 스트레스 반응과 회피, 지연, 억제, 부인과 같은 부적응적 심리적 반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Lain, 1993; 2009). 모호한 상실 문헌에서는 모호함 감내력이 높은 경우 적응적 결과를 촉진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Boss, 2002; Berge & Holm, 2007), 모호함에 대한 낮은 감내력은 개인의 우울 및 가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한다(Anderson & Schwartz, 1992). 이를 고려할 때 모호함 감내력과 모호한 상실감은 상호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변별되는 관계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칙도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계모호성 척도(Boundary Ambiguity Sca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이하 BAS-NK)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비적인 절차로써 원칙도를 번안, 역번안한 후 모호한 상실 맥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하여 번안한 문항 및 시행방식의 적절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BAS-NK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고 향후 시행 방법 및 활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사전조사의 결과를 보완한 본조사 단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BAS-NK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문항을 선별하여 내적일치

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조사 단계에서는 BAS-NK의 최종 문항과 요인구조를 토대로 유관개념들과의 공인, 수렴 및 변별, 그리고 증분타당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우울 및 복합비애와의 관계를 통해 공인 타당도를, 개념적으로 유사한 지속유대를 통해 수렴 타당도를, 그리고 역상관의 관계에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모호함 감내력을 통해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BAS-NK로 측정된 모호한 상실감 개념이 상실 맥락에서 우울, 복합비애를 예측하는데 고유한 설명력을 갖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에 관하여 보다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경계모호성 관련 연구가 부족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상실 관련 문헌에서 주요 인지적 개념으로 언급되는 부정적 비애 인지와의 관련성을 통해 경계모호성이 어떠한 부정적인 인지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부수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BAS-NK는 예비적인 도구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 법

예비 절차

원칙도 번안

원칙도의 문항을 국문으로 번안하기 위해, Boss 등(1990)이 개발한 척도의 여러 버전 중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 맥락과 가장 유사한 BAS-MIA(missing in action) 버전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의 방식을 따라 원저자와의 이메일

일 교신을 통하여 척도의 사용 및 수정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이후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전문가, 이중언어가능자로 구성된 연구진 내에서 번안 및 역번안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 연구자가 척도를 번안하여 심리학 박사와 협의 후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이중언어가능자 1인이 역번안하였으며, 동료 임상심리전문가 2인, 심리학 전공 석사급 연구원 1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역번안된 문항을 다시 번안하여 초안과 원문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이후, 심리학 박사 1인의 검수 하에 연구진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국문 번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BAS-MIA 버전의 원척도에서 ‘배우자’에 해당하는 모든 표현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구성원’을 떠올리도록 대체하였으며, 복수일 경우 ‘현재 가장 많이 생각나고 만나고 싶은 1인’에 대해 응답토록 하였다(예: I think about my husband a lot: 나는 ()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한다). 또한, 배우자 상실 경험에 대한 특정 표현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상실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바꾸어 번안하였다(예: I no longer consider myself an MIA wife: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외에, 원척도에는 배우자 상실에 대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 가족의 반응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예: 17, 18번), 이는 대상의 물리적인 부재가 가족 내에서 아직 수용되지 못한 상황을 내포한 것으로 이에 대해 높게 응답할수록 경계모호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문항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상실은 배우자 상실 외에 다양한 상실 대상을 포괄하므로 연구진의 상의를 거쳐 ‘my own parents’, ‘my in-laws’를 모두 ‘나는 (혹

은 나의 가족은)’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였다(예: Conflict with my own parents over my husband’s change of status have presented a problem for me: ()의 상실과 관련하여 내 가족들과의 갈등은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배우자 상실에 관한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묻는 원문항 역시 ‘나는 (혹은 나의 가족은)’으로 수정하였다(예: 16번).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다른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을 수 있고 남한에서 가정을 형성하였더라도 자녀가 매우 어리거나 자녀가 부모의 가족이산 배경을 모르고 있는 등 원척도에서 상정한 대상에 비해 매우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이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총 18문항이 각 내용을 잘 전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호한 상실 질적연구(김경아 외, 2019)의 참여자들 중 연령, 학력, 성별, 직업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북한이탈주민 10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최종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번안된 문장이 어색하여 내용 전달이 어렵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재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나는 ()가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문항4)’는 문항은 ‘나는 ()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굳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로 바꾸었으며, ‘나는 ()를 상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죄책감을 느낀다(문항5)’를 ‘나는 ()를 상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남편, 아내, 부모)을 만나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혹은 다른 자녀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죄책감을 느낀다’로 수정하였다.

사전조사 : 문항 질 평가 및 문항 수정

척도의 적용가능성 및 향후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에 관한 기본 정보를 얻고자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전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추적관찰 연구’의 일부에 포함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IRB No. SMC 2015-05-042-008). 자발적으로 동의한 북한이탈주민 300명 가운데 조사 기간 동안 모호한 상실 상황(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고 현재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부합하는 102명의 응답자료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102명의 사전조사 대상자 중 여성은 75명(73.5%), 남성은 27명(26.5%)이었고, 재북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은 47명(46.1%),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은 55명(53.9%)에 해당하였다. 문항의 질 평가를 위해, 변안된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간 상관, 그리고 문항 제거시 내적일관성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결과와 이론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본조사의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모든 문항의 왜도 절댓값이 2 미만, 첨도 절댓값이 4 미만인 기준을 충족하므로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ng et al., 2003). Cronbach's α 로 살펴본 본 척도의 내적일관성계수는 .72 수준으로, 초기 연구들에서 여러 버전의 경계모호성 척도 신뢰도가 .70대로 보고되었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Boss et al., 1990). 신뢰도 수준이 매우 우수하지는 않으나 수용 가능한 수준(acceptable)이므로(Knapp, 1991),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 본 척도를 사용하여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는 것은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총

점 간 상관(item-total score correction)을 살펴보면, 절댓값 .30의 기준(Field, 2013)을 고려했을 때 6문항(1, 3, 9, 11, 13, 15, 16)이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1, 11번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은 삭제할 경우 Cronbach's α 값이 오히려 낮아졌고, 문항의 내용이 해석적인 측면에서 모호한 상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연구진의 논의 하에(예: 나는 여전히 ()가 살아있는지 궁금하다), 이들 문항을 제거하기보다 추후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연구에서 이 문항들을 재확인하기로 하였다.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와 문항 삭제 후 Cronbach's α , 이론적 해석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칙도의 문항 1, 11번은 본 표본에서 전체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으로 검토되었다. 사전조사의 초점은 척도의 활용가능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문항들을 삭제하지 않고 재수정 작업을 거친 후 본조사에서 문항 선별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 1번의 경우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로 변안되었는데, 문항의 본래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구팀 내의 협의를 통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더 이상 상실대상과 자신을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상실대상을 관련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조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설명을 기재하였다. 문항 11번의 경우, 역채점을 제대로 했음에도 문항-총점 간 상관이 -.34인 음수 부호로 산출되었고 이 문항을 삭제할 경우 Cronbach's α 값은 .76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검토 과정

에서 11번의 ‘국가’라는 용어가 남한 또는 북한 중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남,북 어디든 관계없이 모두)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의 내용으로 부연설명을 추가하였다.

추가적으로 15, 16, 17번의 문항에서 ‘나는 (또는 현재 나의 가족)’이라는 표현 역시 ‘남한 가족 또는 북한 가족 중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제기되어, ‘나는 (또는 현재 남한 가족)’이라는 구체화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단, 18번의 경우 특정한 가족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여 응답자가 떠올린 가족의 범주로 응답토록 하였다.

척도 활용 방안 제안

사전조사를 통해 향후 본 척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전조사는 비대면 온라인 설문으로 시행되었고 참여자 각자 읽고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설문에 익숙치 않거나 문항에 대해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연구자와 대면하는 상황에서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연구진 내에서도 북한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상실에 관한 감정에 압도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시 충분히 설명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대면 세팅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수렴되었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된 연구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척도의 문항을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전조사시 경계모호성 척도만 사용

할 경우 상실 맥락과 상실 대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할 수 있어, 관련 질문들로 구성된 상실 특성 질문지를 시범적으로 함께 시행하였다. 이는 모호한 상실의 복합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질적 그리고 양적 연구 방법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방안이었다(Blieszner et al., 2007; Boss, 2007; Boss et al., 1990). 사전조사 시행 결과, 상실 특정 질문지가 상실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본조사를 포함한 향후 연구들에서 BAS-NK를 활용할 때 상실 특성 질문지를 함께 시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전조사시 제작한 상실 관련 질문지는 상실 대상의 범위에 형제자매, 연인, 친구까지 포함되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경계 내의 모호한 상실(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로 상실 대상의 경계를 국한하였다. 또한, 사전조사시에 재북가족의 수를 복수로 응답한 대상자들이 많았고 실제 대다수의 북한 이탈주민이 이에 해당되는 바, 상실 특성 질문지에 재북가족 총 인원 수를 합산할 수 있도록 질문을 추가하였으며 가장 보고싶은 대상 1인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조화하였다. 이후 본조사는 사전조사시 제안된 활용 방안을 따라 진행되었다.

본조사의 연구 절차

본조사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된 척도를 새로운 표본에서 재차 문항분석 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문항 선별 및 요인 구조를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BAS-NK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타당도 분석은 상실 대상에 대한 경계모호성이 개념

적으로 지속유대 및 부정적 비애인지와 관련이 있으며 상실 후 우울, 복합비애를 예측한다는 점을 토대로 상기 개념들의 척도 간 수렴 및 공인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또한,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우울 및 복합비애에 대해 경계모호성이 고유한 설명량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분타당도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BAS-NK로 측정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모호성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실대상, 상실기간 및 상실예측도에 따른 BAS-NK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

본조사의 참여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하나센터, 복지관, 커뮤니티 등)의 협조를 통해 모집하였다 (IRB No. 2020-01-004-004). 표집은 모호한 상실 조건(가족 구성원이 북한에 남아있으며, 생사를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생존해있음을 알 아도 현재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여성에게 한하여 목적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 Patton, 1990)으로 이뤄졌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1>에 기재하였다.

남한에 거주하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현재 약 80% 이상으로 보고된다(Ministry of Unification, 2022). 북한이탈여성은 북한 가족에 대한 부양 및 남한 내 북한이탈가정의 핵심 주체로서 양적인 수치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적응과 향후 개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hee et al., 2011). 이를 반영하듯 북한이탈주민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북

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및 그리움의 정서 또한 북한이탈여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Kim & Chang 2020; Rhee et al., 2011; Cho & Choi, 2013). 본 연구의 사전조사는 정신건강

표 1. 본조사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상실 특성 (N=100)

	구분	빈도(명)
연령	만18-29세	1
	만30-39세	36
	만40-49세	44
	만50-59세	19
남한 거주기간	1-3년 미만	4
	3-6년 미만	9
	6-9년 이하	21
	10년 이상	66
잔존 가족 수	1명	24
	2명	27
	3명	22
	4명 이상	27
상실대상	어머니	29
	아버지	12
	형제자매	45
	자녀	14
상실 경과기간	5년 미만	3
	5-10년 미만	14
	10-15년 미만	22
	15-20년 미만	31
	20년 이상	30
생사여부	직접적으로 생존 확인	48
	간접적인 소식을 전해들음	22
	소식 끊겨서 알 수 없음	30

실태조사에 상실 질문지를 포함한 온라인 설문으로 시행하였기에 북한이탈남성이 약 30% 가량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본조사는 북한 가족에 대한 심리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응답해야하는 상황으로, 사전조사의 연구와는 다르게 설계되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가족의 안전에 대한 염려로 가족 관련 응답에 방어적인 특성이 있어 연구자가 일대일 면대면 상황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다. 전체 집단에서 30% 미만의 비율인 북한이탈남성 중 모호한 상실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찾아 이러한 과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 성인 여성에만 국한하여 본조사의 표집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구되는 최소 사례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MacCallum et al., 1999), 본조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최소 100명으로 산정하였다(Gorsuch, 1988, Kline, 1979). 사전조사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훈련된 연구자 1인이 일대일 면대면으로 북한 가족에 관한 응답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때 언어적인 상호작용 및 질문지 응답을 수행할 수 없는 지적/운동능력상의 손상이 있는 경우, 모호한 상실이 아닌 명료한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상실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아닌 기타 대상을 응답한 경우는 표집에서 배제하였다.

측정도구

상실 특성 질문지

BAS-NK 실시하기에 앞서 상실 특성 질문지를 먼저 시행하여 상실 맥락을 파악하였다. 먼저, 재북가족의 수와 구성원을 기재하도록 한 후, 재북가족이 다수인 경우 현재 가장 생각나는 대상 한 명을 떠올리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기재한 상실 대상에 대한 이별 당시 대상과의 친밀도, 이별 당시의 대상에 대한 중요도, 이별 당시 상실에 대한 예측여부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대상과 이별한 후 경과시간, 현재 생존 여부(직접 목소리를 통해 확인, 간접적으로 확인, 생존여부 알 수 없음)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실대상과의 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 현재의 상황을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통제가 능성), 지각된 재회가능성을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경계모호성

재북가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모호성은 원척도의 버전1(Missing In Action; BAS-MIA)을 토대로 사전조사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BAS-NK로 측정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된 BAS-NK는 18개 문항, 5점 Likert식 척도(1점: 매우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상황에서 BAS-NK의 총합이 높을수록 모호한 상실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우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북한어판 우울 척도(North 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NK)를 사용하였다. 원척도 CES-D는

Radloff (1977)가 일반인들의 우울 증상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식욕 감소, 외로움 등의 우울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묻는 총 20문항의 질문지이다. CES-D-NK는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ark et al.(2015)이 한국어판 CES-D를 북한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이며, 문항의 예로는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를 중심으로 4점 Likert식 척도(0점=극히 드물다, 3점=거의 대부분 경험했다)를 사용한다. Park et al.(2015)의 연구에서 CES-D-NK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91~.93이었다.

복합비에

북한이탈주민의 복합비에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복합비에 척도(Korean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K-ICG)를 사용하였다(Jeoung, 2015).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역기능성과 분리스트레스의 2요인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질문은 5점 Likert식 척도(1점=매우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총합이 높을수록 복합비에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번안된 한국형 문항의 ‘사별’ 관련 표현을 모두 ‘이별 또는 상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형수(2015)의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문항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91~.96에 해당하였다.

지속유대

재북가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유

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지속유대 척도(K-Continuing Bonds Scale: K-CBS)를 사용하였다(Kim et al., 2016). 이는 Field, Gal-Oz, Bonanno(2003)이 개발한 지속유대척도(CBS)를 타당화한 것으로 상실 맥락에서 고인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의 지속을 측정한다(Boelen et al., 2006; Stroebe et al., 2010). 9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 척도이고 5점 Likert식 척도(1점=매우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총합이 높을수록 지속유대가 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원척도 문항의 ‘고인’이라는 표현 대신, 재북가족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며 재북가족이 다수인 경우 가장 보고 싶은 상실대상 1인을 떠올리며 응답토록 하였다 Kim et al.(2016)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92로 제시되었다.

모호함 감내력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함 감내력을 측정하기 위해 모호함 감내력 척도(Multiple Stimulus Types Ambiguity Tolerance Scale-II: MSTAT-II)를 번안, 역번안하고 북한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McLain, 1993; 2009). 이 척도는 일반적인 모호성, 복잡성, 불확실성, 비친숙성, 해결불가능성의 다섯 가지 모호한 자극에 대한 감내 능력을 측정하며 총 13문항, 5점 Likert식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된다. 총합이 높을수록 모호함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해석한다.

부정적 비애인지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상실에 대한 부정적 비애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Boelen, Lensvelt-Mulders(2005)가 개발한 부정적 비애인지 척도(Grief Cognitions Questionnaire;

GCQ)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38문항, 6점 Likert식 척도(0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매우 동의한다)로 되어 있으며 상실과 관련한 인지적 특성인 9개의 하위요인(자기, 세상, 삶, 미래, 자기비난, 타인, 타당성, 비애중시,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를 번안한 국내 선행연구(Hwang, 2010)를 토대로 원문의 내용을 비교, 재검토하여 다시 번안, 역번안한 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에 해당하는 특정 유형의 부정적 비애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Boelen 등(2003)의 연구에서 하위척도별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76~.90으로 제시하였고, 국내의 황선희(2011) 연구에서는 .73~.89로 보고되었다.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PSS 21.0과 Mplus 7.0을 사용하였고 문항분석을 비롯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 단계에서 척도의 예비 타당도 분석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문항분석을 시행하였고 KMO 표준 적합도 확인,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통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로서 Cronbach α 를 구하였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을 계산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측정변수들의 비정규성과 비독립성에 강내성이 있는(robust) 추정 방식인 MLR(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사각회전(geomim)을 적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핵심인 요인 수 결정은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된다(Preacher & MacCallum, 2003).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직관적 논리에 의한 발견법(heuristics), 통계적 논리에 기반한 추론적 접근, 그리고 해석가능성의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Lee et al., 2016). 이에 본 연구는 발견법(Kaiser 규칙(고유치 1 이상), 스크리 도표, 누적분산비율, 평행성 분석), 추론적 접근(모형 합치도: 카이 자승(χ^2),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지수 활용),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요인구조를 결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BAS-NK와 유관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렴 및 변별, 공인타당도를 구하였다. 또한, BAS-NK로 측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이 상실 관련 특성 변수들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부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결 과

수정된 BAS-NK의 문항분석

사전조사에서 수정된 문항의 양호도를 재평가하기 위하여 본조사에서도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사전조사 단계에서 수행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간 상관의 기준을 양호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살

해보았다. 이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 문항들은 연구진의 합의에 따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사결정하였다.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의 기준에서 양호하지 못한 문항으로 선별된 것은 세 문항(3, 14, 18번)이었다. 또한 문항-총점 간 상관과 문항 제거시 내적일관성계수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다섯 문항(7, 11, 12, 17, 18번)이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항들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문항 양호도는 낮지만 삭제할 경우 오히려 내적 일관성이 낮아지는 두 문항(3, 14번)과 내용상 상실대상에 대한 경계모호성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된 두 문항(7, 12번)은 연구진의 결정에 따라 제거하지 않기로 하였다. 남은 세 문항(11, 17, 18번)은 잠정적으로 삭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의 단계에서는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요인구조를 찾고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부합하는 해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문항선별이 이뤄져야 한다(Jahng, 2015).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수의 선택, 회전 후의 요인구조, 요인 간 상관의 크기,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BAS-NK의 최종적인 문항을 선별하고 요인구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성 지수는 .703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333.164($p < .001$)로 나타나 분석할 표본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MLR(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전은 사각회전(geomin)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문헌에서 권고하는 바대로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Preacher & MacCallum, 2003).

먼저, 발견법으로 대략적인 요인개수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을 검토한 결과(Kaiser, 1961) 다수의 요인이 추출되어 본 척도가 단일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Scree 도표의 고유치 감소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대략적인 요인개수의 범위가 2~3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어서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시행하여 연구표본과 무선 생성된 표본에서 계산된 요인 별 고유값을 비교해보았다<그림 1>. 평행분석 결과, 1,000개의 고유값 평균과 고유값 95% 분위수를 산출하였을 때 고유값 95% 분위수보다 큰 기준을 고려하여 요인개수는 2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법을 통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일요인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시사되나, 다수의 선행연구가 단일요인으로 활용해왔고 발견법으로 산출된 요인 수는 통상 -1~+1개까지의 범위를 검토하므로 적정 요인개수의 범위를 1~3개로 정하였다.

두 번째로, 1~3요인 모형의 합치도를 참조하여 추론적 접근을 통해 비교하였다<표 2>. 모형 합치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나, 기구조를 구하기 전 요인 수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 중 하나로 권고되기도 한다(Fabrigar et al., 1999; Lee, 2010). <표 2>에서 탐색적 목적으로 추론적 접근을 통해 비교한 결과, 1요인 모형은 합치도가 나쁘고, 2요인 모형에서 현저하게 좋아지며 3요인 모형에서는 합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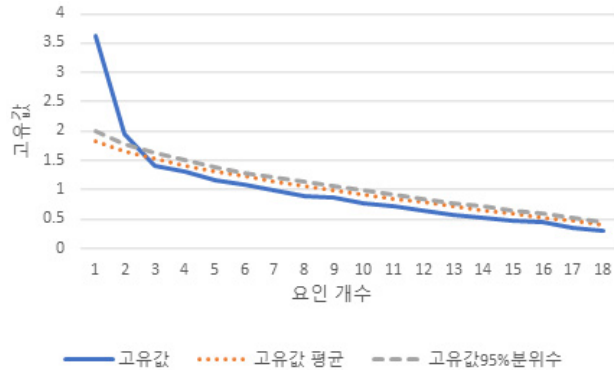


그림 1. 요인 별 고유값 비교(평행분석 결과)

가 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직관적인 발견법과 추론적 접근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척도가 단일요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1요인 모형을 제외하였다.

세 번째로, 2, 3요인 모형의 해석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각 모형에 대한 탐색적 회전 결과의 형태계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다. 그 결과, 2요인 모형에서 3요인 모형으로 요인 수가 늘어나면 하나의 요인에 부하되던 문항들이 둘로 나뉘어 세 번째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요인에서 분리된 문항들의 내용이 특정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요인들 간 상관 또한 음수로 나타나 이론적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서 시행한 발견법 및 추론적 접근, 그리고 이론적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 적절한 요인의 수를 두 개로 판단하였다.

이때 문항분석시 삭제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3개 문항(BAS 11, 17, 18번)은 1~3요인 모형에서 요인부하량이 공통적으로 낮았고, 문항-총점 상관 및 전반적인 문항간 상관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같은 요인 내의 다른 문항들과 해석적으로도 일관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BAS-NK에서 제외하기로 판단하였다. 두 요인에 모두 교차부하되는 두 문항(5, 6)과 두 요인에서 모두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세 문항(3, 7, 13번)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는 주요 문항으로 사용된 바 있고 구성개념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 문항으로 고려되어 제외하지 않았다(Caron et al., 1999; Mu et al, 2005; 2010; Renner et al,

표 2. 탐색적 1~3요인 모형의 합치도 (N=100)

모형	$\chi^2(df)$	CFI	TLI	RMSEA	SRMR
1요인 모형	175.029* (135)	.792	.765	.054	.085
2요인 모형	125.537* (118)	.961	.949	.025	.061
3요인 모형	107.579* (102)	.971	.957	.023	.053

* $p < .05$, ** $p < .01$

표 3. BAS-NK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BAS-NK 문항	요인	
		요인1	요인2
2*	나는 ()를 상실한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다 (I feel I have prepared myself for a change in status (to widow))	.668	
1*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이상 자신을 그 대상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 (I no longer consider myself and “MIA” wife)	.653	
4	나는 ()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굳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 (I continue to keep alive my deepest hope that my husband will return)	.484	
15*	나는 (혹은 나의 현재 가족은) ()를 상실했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다 (My children are aware of all “the facts” and have reconciled their father’s loss)	.393	
14	나는 여전히 ()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My children still believe that their father is alive)	.355	
3	나는 여전히 ()가 살아있는지 궁금하다 (I find myself still wondering if my husband is alive)	.274	
7	나는 ()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I will never be satisfied until I have positive proof of my husband’s death)	.256	
8*	나는 ()을 상실 했지만 이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기를 원한다 (I hope to remarry)		.791
12	나는 ()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I feel incapable of establishing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another man)		.513
16	나는 (혹은 나의 현재 가족은) 곁으로 보기에 꽤 자주 ()에 대해 이야기한다 (My children and I talk about their father seemingly quite often)		.337
5	나는 ()를 상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혹은 다른 자녀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죄책감을 느낀다 (I feel guilty about dating (or wanting to date))		.314
6*	나는 ()를 더 이상 기다리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죄책감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I feel I am able to plan my future without feeling guilty for not continuing to wait for my husband)		.308
10	나는 ()가 없이 혼자 새로운 삶을 꾸리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I feel it will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carve out a new life for myself without my husband)		.290
9	나는 () 생각을 많이 한다 (I think about my husband a lot)		.270
13*	나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My children are able to talk about their father without becoming emotionally upset)		.236
	고유값	3.54	1.79
	설명분산 (%)	23.60	11.93
	누적분산 (%)	23.60	35.53

주. 요인1 =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요인2 =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역문항은 * 표시하였음)

* 삭제문항: 원척도의 11,17,18번

11. ()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노력을 다 했다
(The Armed Services have done everything reasonably possible to account for my husband)
17. ()의 상실과 관련한 내 가족들과의 갈등은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Conflicts with my own parents over my husband’s change of status have presented a problem for me)
18. ()없이 나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려는 계획에 대해 다른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My in-law do not or would not approve of my plans to develop a life for myself)

2021). 각 문항들은 연구진의 합의를 통해 내용적인 해석에 부합하는 요인 내에 포함시켰다.

다만, 9번, 10번 문항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요인1에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한 버전의 원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요인2와 유사한 범주로 보고된 바 있다(Caron et al., 1999; Mu et al., 2005). 본 연구에서 요인1로 포함하였을 때 두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3대인 점으로 미뤄보아 수치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석상으로도 요인2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는 선행연구를 따랐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선별한 문항으로 구성된 2요인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문항 내용과 함께 <표 3>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상실상황 및 상실대상의 정보가 불명확한 것과 관련되는 7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ambiguity-laden items)’으로 명명하였다(이하 요인1). 두 번째 요인은 상실 후 적응과 관련되는 8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distress-laden items)’라 명명하였다(이하 요인2). 두 하위요인간 상관은 .21에 해당하여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수백, 2009; Kline, 2011). 본 척도에서 산출되는 총점은 두 하위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모호한 상실감’으로 명명할 것이다.

신뢰도

BAS-NK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는 .72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내적 합치도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문항을 제거한 총 15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4로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BAS-NK 각 하위 요인

표 4. BAS-NK의 내적 합치도, 문항-총점 간 상관 계수 (N=100)

문항 번호	내적 합치도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요인 별 Cronbach α	문항 삭제시 Cronbach α	
2*		.51	.60
1*		.52	.58
4		.57	.41
15*	.61	.57	.43
14		.58	.44
3		.61	.27
7		.62	.27
8*		.64	.62
12		.68	.41
16		.70	.34
5	.70	.66	.55
6*		.64	.61
10		.67	.51
9		.67	.50
13*		.69	.34

주. 요인1 =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요인2 =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의 내적 합치도계수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각 .61, .70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낮은 상관을 보임에도 문항 내용상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두 문항(3, 7번)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이 .34~.62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BAS-NK와 유관 변인과의 관계

BAS-NK와 유관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실 후 부적응을 대표하는 우울,

복합비에, 모호함 요인과 관련되는 모호함 감내력, 그리고 상실 대상에 대한 관계적 변인인 지속유대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또한, 상실 후 부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인지적 변인인 부정적 비애인지와의 관계를 통해 BAS-NK가 어떠한 인지적 요인과 밀접한 특성을 보이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표 5~7>.

먼저, <표 5>에서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BAS-NK 총점(이하, 모호한 상실감)으로 측정된 모호한 상실감과 우울, 복합비에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모호한 상실감은 우울, 복합비에에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5, p<.01, r=.55, p<.01$).

보다 구체적으로 BAS-NK의 두 하위요인과 우울, 복합비에 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BAS-NK의 요인1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r=.17, m$), 요인1과 복합비에 총합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나($r=.25, p<.05$) 복합비에의 하위요인인 분리스트레스,

역기능성 중 분리스트레스와만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r=.32, p<.01, r=.16, m$). 이와 비교하여 BAS-NK의 요인2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r=.38, p<.01$), 복합비에와 관련하여서는 분리스트레스 및 역기능성 하위요인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55, p<.01, r=.59, p<.01$). 나아가 BAS-NK의 각 하위요인이 우울, 복합비에에 대해 어느 정도 고유한 예측력을 갖는지를 보다 상세히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울, 복합비에 총합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요인1을 1단계에 투입한 후 요인2를 2단계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표 6>. 그 결과, 우울증상을 예측하는데 있어 요인1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R^2=.02, m$), 요인2는 요인1을 통제하고 약 12%의 설명량을 보였다($\Delta R^2=.12, p<.001$). 한편, 복합비에 증상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요인1은 약 5%의 설명량을 지니고 있었으며($R^2=.05, p<.05$), 요인2는 이를 통제하고도 약 34% 정도를 추가적으

표 5. BAS-NK와 관련 변인 간 상관 (N=100)

	1	1-1)	1-2)	2	3	3-1)	3-2)	4	5
1. 모호한 상실감 (BAS-NK)	-								
1-1)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79**	-							
1-2) 상실 대상에 대한정서적/관계적 몰두	.86**	.37**	-						
2. 우울	.35**	.17	.38**	-					
3. 복합비에	.55**	.25*	.64**	.62**	-				
3-1) 분리스트레스	.54**	.32**	.55**	.46**	.86**	-			
3-2) 역기능성	.48**	.16	.59**	.63**	.94**	.63**	-		
4. 지속유대	.48**	.25*	.52**	.21*	.38**	.38**	.32**	-	
5. 모호함 감내력	-.13	-.08	-.14	-.38**	-.35**	-.23*	-.38**	-.11	-
평균	51.11	26.66	24.45	22.51	90.95	43.90	47.05	34.65	34.97
표준편차	7.91	4.35	5.19	14.03	18.52	8.32	12.14	7.42	7.10

주. * $p<.05$, ** $p<.01$

표 6. BAS-NK 하위요인의 우울,복합비에 증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100)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B	SE	β	t	수정된 R ²	ΔR^2
우울	1	요인1	.55	.32	.17	1.72	.02	
	2	요인1	.11	.33	.03	.34		
		요인2	1.00	.27	.37	3.67***	.13***	.12***
복합비에	1	요인1	1.05	.42	.25	2.53*	.05*	
	2	요인1	.06	.36	.02	.18		
		요인2	2.25	.30	.63	7.48***	.39***	.34***

주. 요인1=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요인2=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 $p < .05$, ** $p < .01$, *** $p < .001$

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 = .34$, $p < .001$).

수렴타당도는 모호한 상실감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지속유대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BAS-NK의 총점과 지속유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r = .48$, $p < .01$). 이때 모호한 상실감과 지속유대가 개념적으로 같은 속성을 측정할지 모른다는 대안적 해석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에, 부가적으로 증분타당도를 통하여 두 개념이 각각 우울과 복합비를 달리 예측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울 증상에 관해 모호한 상실감은 지속유대 설명량($R^2 = .04$, $p < .05$)에 비하여 약 8%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 = .08$, $p < .01$). 복합비에 관해서는 모호한 상실감이 지속유대 설명량($R^2 = .13$, $p < .001$)에 비해 약 18%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Delta R^2 = .18$, $p < .001$). 또한, 변별 타당도를 탐색하기 위해 살펴 본 모호한 상실감과 모호함 감내력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았다($r = -.13$, *ns.*).

한편, BAS-NK의 두 하위요인별 특성을 보

다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실 관련 선행 연구에서 주요 인지적 변인으로 고려되는 부정적 비애인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BAS-NK의 총점과 부정적 비애인지 총점 간 상관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다($r = .51$, $p < .01$). 두 개념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탐색하기 위해 각 하위요인 간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2는 부정적 비애인지의 9개 하위요인(자기, 세상, 삶, 미래, 자기비난, 타인, 타당성, 비애중시,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r = .35 \sim .59$, $p < .01$), 요인1은 부정적 비애인지의 유형 가운데 자기($r = .24$, $p < .05$), 자기비난($r = .46$, $p < .01$),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r = .23$, $p < .05$) 하위요인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상실 특성에 따른 BAS-NK의 차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BAS-NK 총합으로 측정된 모호한 상실감이 북한이탈주민의 상실 상황 및 상실대상 관련 변인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상실상황과 관련한 변수로, <표 1>에 기

표 7. BAS-NK와 부정적 비애인지의 하위요인 간 상관 (N=100)

	1	1-1)	1-2)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모호한 상실감	-												
1-1)	.79**	-											
1-2)	.86**	.37**	-										
2. 부정적 비애인지	.51**	.24*	.57**	-									
2-1)	.51**	.24*	.58**	.94**	-								
2-2)	.38**	.14	.46**	.81**	.73**	-							
2-3)	.40**	.14	.48**	.90**	.91**	.66**	-						
2-4)	.34**	.09	.44**	.88**	.80**	.61**	.87**	-					
2-5)	.64**	.46**	.59**	.78**	.70**	.66**	.58**	.54**	-				
2-6)	.31**	.14	.36**	.76**	.64**	.62**	.61**	.60**	.54**	-			
2-7)	.28**	.09	.35**	.83**	.73**	.64**	.75**	.73**	.57**	.64**	-		
2-8)	.43**	.19	.50**	.89**	.83**	.63**	.83**	.84**	.62**	.69**	.66**	-	
2-9)	.48**	.23*	.54**	.88**	.79**	.64**	.72**	.76**	.68**	.66**	.67**	.79**	-
평균	51.11	26.66	24.45	65.57	8.64	8.07	4.10	6.55	14.03	4.96	6.54	4.82	7.86
표준편차	7.91	4.35	5.19	42.57	7.74	6.16	4.63	5.89	6.59	3.22	5.13	4.02	6.32

주. 1-1)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1-2)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2-1)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지, 2-2)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 2-3) 삶에 대한 부정적 인지, 2-4)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 2-5) 자기비난, 2-6)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지, 2-7) 비애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인지, 2-8) 비애 중시, 2-9)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

주. * $p < .05$, ** $p < .01$, *** $p < .001$

술한 가족의 지각된 생사여부, 잔존가족의 수, 상실경과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의 지각된 생사여부 ($F(2,97)=1.92, ns.$), 잔존가족의 수 ($F(3,96)=1.78, ns.$), 상실경과기간 ($F(4,95)=2.11, ns.$)에 따른 모호한 상실감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과거시점에서의 상실 예측수준 ($B=-.70, ns.$)²⁾, 상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수준 ($B=.09, ns.$)³⁾

이 각각 모호한 상실감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탐색하였을 때에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상실대상 관련 변수로 가장 많이 생각나고 만나고 싶은 1인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 수준의 차이를 검토하였을 때, 대상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4.64, p < .01$). Sheffe 사후검증 결과, 자녀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 ($M=57.50, SD=7.70$)이 아버지 ($M=47.42, SD=10.84$), 형제자매 ($M=50.07,$

- 2) “이별당시, 만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 3) “북한에 있는 가족이 살아있으나 만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귀하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얼마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D=6.44)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에 대해 응답한 집단이 다른 상실대상을 떠올린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모호한 상실감을 더 높게 보였으나, 어머니를 상실대상으로 응답한 집단(M=51.17, SD=7.36)과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2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유의하였다($F=5.05, p<.01$). 다만, 요인1에서는 상실대상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2.06, ns$).

가장 보고싶은 상실대상 1인에 대한 친밀도⁴), 중요도⁵), 지각된 재회가능성⁶)이 모호한 상실감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탐색해보았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BAS-NK 총점인 모호한 상실감에 대해 지각된 재회가능성($B=2.01, p<.001$),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요인1에 대해서는 지각된 재회가능성 뿐 아니라($B=1.38, p<.001$), 상실대상에 대한 중요도($B=1.28, p<.05$)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요인2에 대해서는 상실 대상과 관련한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가족이산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기 위해 Boss 등

- 4) “이별할 당시, 귀하는 그 사람과 어느 정도로 친밀하였습니까?”
- 5) “이별할 당시, 그 사람이 귀하께 어느 정도로 중요한 존재였습니까?”
- 6) “앞으로 사는 동안,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십니까?”

(1990)이 개발한 경계모호성 척도를 예비 타당화 하였다. 먼저 국문으로 번안 및 역번안 한 후, 사전조사를 통해 번안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실시방법을 보완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을 선별하고 요인구조를 탐색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간 이별 맥락을 모호한 상실로 조망하고, 모호한 상실감을 개념화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예비적인 도구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BAS-NK는 문항 양호도가 낮은 것으로 고려된 세 문항을 제거하여 15문항으로 최종 선별되었으며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BAS-NK가 단일요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견법 및 추론적 접근, 해석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2요인구조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탐색되었다. 본 연구에서 2개의 하위요인은 각각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ambiguity-laden items)’ 7문항과 ‘상실 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distress-laden items)’ 8문항으로 명명되었다. 즉, 상실 상황에 대해 모호함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상실대상에 관계적, 정서적으로 몰두되는 경향을 높게 보일수록 모호한 상실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BAS-MIA 버전 원칙도를 수정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경계모호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도 2요인구조를 보고한 바 있다(Caron et al., 1999). 이 연구에서는 ‘caregiver immobilization’과 ‘caregiver closeout’으로 명명하여 두 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대상에 정서

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보호자 역할에 압도되는 반응을 측정하며 ‘정서적 요인과 관련되는(distress-laden)’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후자는 환자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된 반응을 일컫는 ‘비정서적(지각적) 요인(nondistress-laden)’ 문항으로 구성되었다(Carroll et al., 2007). 본 연구의 BAS-NK 요인구조에서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하위요인은 선행연구의 ‘caregiver immobilization’ 요인이 내포하고 있는 정서적 측면을, 그리고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하위요인은 ‘caregiver closeout’와 같이 지각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BAS 척도가 모호함에 대한 지각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된 요인구조임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로 상실 후 모호한 상실감의 개념적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정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한편, BAS-NK의 두 하위요인 간 상관이 .21로 낮게 나타나 단일요인이 아닌 변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두 요인은 모호한 상실감의 개념으로 묶여 있으므로 변별성 외에도 수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척도에 포함되는 하위척도 간 수렴성은 사각회전의 결과에서 요인간 의미있는 상관이 관찰될 때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Jahng 2015). 그러나 잠재요인 간 상관은 통상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맥락에서 활용되므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요인 간 수렴성을 의미있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원척도 BAS의 2요인구조를 언급한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도 요인간 상관에 대한 정보는 보고되지 않아 본 연구의 탐색적 결과에서 하위요인 간 수렴성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안적으

로 잠재요인이 아닌 문항 조합점수(composite score)를 이용한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하위척도 간 상관계수는 .37($p < .01$)로 유의하였고 두 하위척도 모두 BAS-NK 총점(15문항)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r = .79, .86, p < .01$), 문항 삭제 이전의 BAS 원척도(18문항) 총점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77, .84, p < .01$). 이는 두 하위요인이 ‘모호한 상실감’이라는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잠재요인 간 상관값은 통상 조합점수 간 상관보다 작게 추정됨을 고려할 때(Brown, 2015), 본 연구에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요인간 상관을 구하면 더 높은 값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둘째, BAS-NK의 공인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실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심리적 어려움인 우울(CESD-NK) 및 복합비애(K-ICG)와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BAS-NK 총점(모호한 상실감)은 우울과 약한 정도의 정적 상관을, 그리고 복합비애와는 중등도의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호한 상실감과 우울, 상실 후 부적응의 정적 관계를 보고해 온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부재에 대한 해외 연구에서 BAS 원척도로부터 산출된 경계 모호성 총점은 개인의 적응 기능 수준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35, p < .05$)관계에 있었고(Boss, 1977),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의 물리적 부재를 다룬 국내연구에서는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계모호성의 총합이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30, p < .01$)관계를 나타냈다(Kim & Chang, 2020). 원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들의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

구의 BAS-NK 공인타당도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BAS-NK의 두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우울, 복합비애와의 관계성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았을 때, 먼저, 요인1인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복합비애의 하위요인 중 분리스트레스와만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BAS-NK의 요인2인 ‘상실 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복합비애와는 분리스트레스 및 역기능성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요인1은 우울, 역기능적 비애 반응과 같은 정서적 문제보다 대상과의 분리에 초점화된 심리적 반응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요인2는 모호한 상실의 지각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1에 비해 우울 및 역기능적 비애 반응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BAS-NK의 두 하위요인이 관련 변수들과 차별화된 관계성을 보이는 결과로 모호한 상실감의 특정 요소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호한 상실의 각 하위요인이 우울과 복합비애에 대해 갖는 예측력의 차이를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요인1에 해당하는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은 우울에 대해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았고 복합비애를 예측하는데 있어 약 5%의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다. 요인2인 ‘상실 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는 우울과 복합비애를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요인1을 통제한 후에도 우울 증상에 대해 약 12%를 추가적으로 예측하였고, 복합비애 증상에 대해서는 약 34%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지니고 있었다. 하

위요인별 비교를 통해 요인2가 심리적 어려움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된 점은 2요인구조에서 지각된 모호함 요인(요인1)의 영향력을 강조했던 Caron 등(1999)의 결과와 불일치한다. 이는 상실의 유형(치매로 인한 심리적 모호한 상실 vs. 이별로 인한 물리적 모호한 상실)에 따른 차이와 북한이탈주민의 맥락적 특수성(예: 분단체제 하에서 가족이 생존해있음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데려올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차이일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 맥락에서는 상실의 모호함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보다도 두고 온 가족의 현실적인 여건과 안전에 대한 염려로 이에 대한 복합적인 정서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초점은 요인1의 예측력이 요인2에 비해 작다는 것을 비교한 것에 있기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하기는 하나 복합비애에 관해서 만큼은 요인1이 요인2와 별도로 고유한 설명량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모호한 상실감이 우울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BAS-NK의 요인2인 ‘상실 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경향만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이로 미뤄보아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우울은 상실의 모호함 그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상실 대상에 지속적으로 몰두하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심리적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복합비애는 요인1,2와 모두 관련되는 주요 심리적 경험이므로 모호한 상실감으로 인한 영향을 이해할 때 우울 증상과 더불어 복합비애의 수준을 함께 주요 지표로 제안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우울만으로 모호한 상실감의 특수한 정서적 결과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상실에 보다 특정화된 비애반응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제안과도 일치한다(Heeke et al., 2015; Lenferink et al., 2018). 상기의 논의는 BAS-NK의 2요인 구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로 기존 연구에 더해 모호한 상실감의 구성요인이 상실 후 서로 다른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유용한 추가적 정보를 시사해준다.

셋째, BAS-NK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개념적으로 유사한 지속유대(K-CBS)와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정적 상관이 유의하여 이론적인 예측이 지지되었다. 지속유대는 물리적으로 부재하는 상실대상과의 관계가 지속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Stroebe & Schut, 2005) 모호한 상실의 경계모호성과 개념적인 유사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BAS-NK로 측정한 모호한 상실감은 지속유대를 통제된 후에도 우울, 복합비애를 예측할 때 추가적 설명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모호한 상실감이 지속유대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동일한 속성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모호함 감내력(MSTAT-II)과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호함 감내력은 불명확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McLain, 2009) 이것이 높을수록 모호한 상실감을 낮게 경험할 할 것이 예측되며 두 개념간 부적 상관을 통해 변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BAS-NK의 모호한 상실감과 모호함 감내력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13, ns$).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변별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변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척도가 측정하는 개념이 다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선행연구를 토대로 예측한 두 개념 간 관계성이 지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모호함 감내력 척도가 측정하는 구성개념이 모호한 상실 이론에서 상정하는 모호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부재하여 이러한 해석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BAS-NK의 두 하위요인 특성을 보다 다양하게 파악하려는 탐색적인 목적으로 상실 상황에서 주요 인지적 변인인 부정적 비애인지(GCQ)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BAS-NK 총점과 부정적 비애인지 총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모호한 상실감과 상실 후 부정적인 인지적 요소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BAS-NK의 요인1은 부정적 비애인지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기 자신(self)’과 관련되거나(예: 00와 헤어진 후 나 자신이 가치없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비난(self-blame)’의 양상을 보이며(예: 나는 00와의 헤어짐을 예견하고 막았어야 했다), ‘비에에 대한 위협적 해석(catastrophic interpretation)’(예: 00와의 헤어짐에 대해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나는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과 특정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는 재복가족 상실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죄책감 이면에 자기비난을 포함하여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지적 해석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9; Cho & Choi, 2013).

또한 BAS-NK의 요인2는 부정적 비애인지의 9개 하위요인(자기, 세상, 삶, 미래, 자기비난,

타인, 타당성, 비애중시,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은 BAS-NK의 두 하위요인과 공통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므로 모호한 상실의 부적응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지적 요인인 것으로 고려된다. ‘비애에 대한 위협적 해석’은 자신의 비애 반응을 과국적으로 해석하여 비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정적 인지의 한 유형으로 모호한 상실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속비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Lenferink et al., 2018). 이로 미뤄볼 때 가족이산의 맥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또한 모호한 상실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모호한 상실감이 명료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다수 보고되어 왔으나, 자신의 심리적 증상에 대한 과국적 해석, 자기비난, 부적응적 회피 등과 같이 병리로 확산될 수 있는 기제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지 요인과의 관련성을 처음 제안하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부정적 비애인지 요인이 어떠한 체계적인 심리적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각 하위양상에 따른 모호한 상실감의 개입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상실 특성에 따른 BAS-NK 점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상실대상에 따

른 모호한 상실감의 차이는 유의하였는데 가장 보고싶은 상실대상 1인에 대해 자녀로 응답한 집단이 아버지, 형제자매로 응답한 집단보다 모호한 상실감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BAS-NK의 하위요인인 상실대상에 대한 몰두(요인2)를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자녀와 이별한 상황에서 대상에 대한 정서적, 관계적 몰두 경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탐색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경험은 재북가족 중에서 특히 자녀와의 재결합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북한이탈여성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된다(Cho, 2012). 가족의 순차적인 탈북을 위한 노력과 남한에서의 가족 재결합 대부분이 자녀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BAS-NK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지각된 모호함(요인1)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상실 대상이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의 수준은 유사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실대상과 관련한 특성으로 친밀도, 중요도, 대상에 대한 지각된 재회가능성이 모호한 상실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재회가능성만 유의하게 보고되었다. 즉, 대상과의 친밀한 정도나 관계의 중요도보다는 앞으로 상실대상과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높게 지니고 있을수록 모호한 상실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재결합에 대한 강렬한 기대는 사별 상실과 구분되는 모호한 상실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되므로 모호한 상실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지각된 재회가능성은 중요한 예측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모호한 상실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주제로도 확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종자 가족 집단에서 재회가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지속비에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ecke et al., 2015.) 이 연구에서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지 않았더라도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재회가능성과 지속비에 사이에서 모호한 상실감이 일련의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상실 후 부적응적 결과로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의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표 1>에 제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또 다른 상실 특성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지각된 생사여부, 잔존가족의 수, 상실경과기간’에 따른 모호한 상실감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모호한 상실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검토해보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의미있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별한 가족이 직접 생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거나 간접적으로 생존 소식을 접하였을지라도, 소식이 끊겨 현재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과 유사한 수준의 모호한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잔존 가족의 수가 한 명이든, 다수이든, 이별한 기간이 5년 미만이든, 20년 이상이든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은 이러한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경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재확인여부를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상실 특성 질문지를 통해 ‘이별 시점에서 상실을 어느 정도로 예측했었

는지(상실 예측수준)’와 ‘현재 시점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상실 상황을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통제가능성 수준)’를 측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실 경험은 상실 후 부적응을 야기하는 위험요인 중 하나로 고려되며(Kim et al., 2021; Shin et al., 2019; Stroebe et al., 2006), 모호한 상실 맥락에서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왔다(Boss,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과 모호한 상실감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했으며 모호한 상실감의 예측인자로 작용한다면 향후 모호한 상실감이 심리적 어려움으로 심화되는 기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연구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상실 예측수준’과 ‘통제가능성 수준’ 둘다 모호한 상실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각 요인이 상실 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모호한 상실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 외에 여러 측면에서 대안적인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이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으므로, 향후 모호한 상실감의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다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맥락적 요인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Kim et al, 2019), 비교할 수 있는 선행 연구 및 기초 정보가 아직 불충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점으로 향후 BAS-NK를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을 통해 다양하게 설계된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제공한 결과를 재확인하고 비교,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모호한 상실 상황에 있는 북한이탈여성 성인 100명을 표집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수와 표본의 성별이 제한된 점을 한계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례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우수한 것으로 고려되며(Stevens, 2012) 요인분석과 같이 더 큰 표본 크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문항 수의 5~7배 이상이면서 최소 100명의 기준을 충족하면 적정 수준으로 수용될 수 있다(De vet et al., 2005; Terwee et al., 2012).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이에 부합하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수용가능한 범위이기는 하지만 요인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요인부하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미비한 측면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인 여성에 국한한 표집을 진행하였으므로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결과도 도출되었다. 실제 남한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80% 이상이 여성인 현실적인 한계로 북한이탈주민 연구 대부분은 여성에 한해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남녀 성차를 적절히 분석하기 어려웠던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제기되어 왔던 한계점이다(Lee & Jeon, 2016; Han et al., 2017). 북한이탈주민 성차에 대해 비교한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높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음주문제가 더 높게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여성의 심리적 취약성이 정착초기에는 남성보다 높더라도 정착 이후 기간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우울 및 음주 문제가 여성보다 높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Kim & Shin, 2010; Cho et al., 2005). 또한, 문화 적응의 관

점에서 북한이탈남성이 북한이탈여성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남한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다(Han et al., 2017). 이로 미뤄보아 예상컨대 북한이탈남성의 경우 북한이탈여성에 비해 정착 이후의 적응 과정에서 더 많은 취약성이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모호한 상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응의 문제가 가중되는 경우 상실 후 심리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Kim et al.,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남성의 모호한 상실감은 여성에 비해 우울 및 복합장애를 더 크게 예측하는 선행요인일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한이탈여성은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배경, 타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남성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Rhee et al., 2011), 특히, 탈북과정에서 노출된 심리적 외상, 정착 후 결혼 생활에서 겪는 갈등,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 등은 북한이탈여성의 모호한 상실감에 영향을 미쳐(Cho & Choi, 2013) 남성과는 또 다른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빈안한 척도를 검수하고 문항의 질을 평가하는 예비적인 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 남녀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본조사에서는 현실적인 표집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여성에 국한해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사회문화적 배경 및 상실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탐색적으로 풍부한 해석적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했지만 이를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북한이탈주민 남녀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을 반영한 대규모 표본에서 척도의 심리 측정적 속성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사전조사시 상실 대상과의 관계를 가족 외에 연인, 친구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조사에서는 본래 ‘가족경계’를 토대로 제작된 원척도의 범위를 토대로 상실대상을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자녀’에 국한하였다.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가족간 경계가 뚜렷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배우자’나 ‘연인’을 포함하면 가족의 경계모호성과는 또 다른 측면이 혼재될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포괄적으로 연구참여자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다수의 상실 대상과 이별한 경우,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응답하기보다 ‘가족 단위’, ‘상실대상들’ 전반에 대한 모호한 상실감으로 응답하는 방식을 향후 대안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타당화 검증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척도들은 사별 상실 상황에서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지만, 북한이탈주민 연구나 모호한 상실 연구에서는 아직 축적된 정보가 불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의 척도들을 번안, 역번안한 후 사별 상실에 해당하는 표현을 모호한 상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척도들 간 관계는 전반적으로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모호한 상실에 보다 보편적인 측정도구를 포함하여 BAS-NK의 타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이뤄졌으므로 모호한 상실감과 유관 개념들 간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예컨대 모

호한 상실감이 우울을 예측하는 것인지, 현재 우울한 기분으로 인해 모호한 상실감이 심화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전향적 설계를 통해 시간 변화에 따른 모호한 상실감의 수준을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보다 정밀하게 유관 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원척도 BAS의 18개 문항을 국문으로 번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사전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3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원문항의 의도를 최대한 변형없이 전달하고 원척도를 토대로 한 BAS-NK를 제안하려는 목적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일부 문항은 번안이 다소 어색하거나 낮은 평균값 및 요인부하량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문항 삭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최종 선별된 문항은 북한이탈주민의 검수 및 심리학 전공자로 구성된 연구진의 논의 하에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척도 BAS와 BAS-NK 간 수정이 이뤄진 문항에 대해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요인구조를 제안한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였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도출한 BAS-NK의 요인구조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추후 독립된 새로운 표본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교차타당화를 시행하고 동일한 요인구조가 반복적으로 지지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

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을 측정할 수 있는 일차적인 도구를 마련한 첫 번째 시도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이를 위해 요인구조 및 타당화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였던 BAS를 국문으로 번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BAS-NK를 예비 타당화하였으며, BAS-NK의 신뢰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2요인구조라는 예비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측정도구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탐색하고 향후 활용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에서 반복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요인구조 및 신뢰도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BAS-NK가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서 구비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모호한 상실감이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를 탐색하는 연구들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산 맥락에서 모호한 상실감의 기저선을 측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모호한 상실감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 목표와 방안을 보다 명료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Anderson, S., & Schwartz, A. (1992). *Intolerance of ambiguity and depression*. *Social Cognition*, 10(2), 271-298.
<https://doi.org/10.1521/soco.1992.10.3.271>
- Baraković, D., Avdibegović, E., & Sinanović, O. (2013). Depression, anxiety and somatization in women with war missing family members. *Materia Socio-Medica*, 25(3), 199.
<http://doi.org/10.5455/msm.2013.25.199-202>
- Berge, J. M., & Holm, K. E. (2007). Boundary ambiguity in parents with chronically ill children: Integrating theory and research. *Family Relations*, 56(2), 123-134.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7.00446.x>
- Blackburn, J. A., Greenberg, J. S., & Boss, P. G. (1987). Coping with normative stress from loss and change: A longitudinal study of rural window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1(1-2), 59-70.
https://doi.org/10.1300/J083V11N01_05
- Blieszner, R., Roberto, K. A., Wilcox, K. L., Barham, E. J., & Winston, B. L. (2007). Dimensions of Ambiguous Loss in Couples Coping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56(2), 196-209.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7.00452.x>
- Boelen, P. A., & Lensvelt-Mulders, G. J. (2005).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grief cognitions questionnaire (GCQ).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7(4), 291-303.
<https://doi.org/10.1007/s10942-016-0236-0>
- Boelen, P. A., Stroebe, M. S., Schut, H. A., & Zijerveld, A. M. (2006). Continuing bonds and grief: A prospective analysis. *Death Studies*, 30(8), 767-776.
<https://doi.org/10.1080/07481180600852936>
- Boelen, P. A., van den Bout, J., & van den Hout, M. A. (2003). The role of cognitive variables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after the death of a first degree relativ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10), 1123-1136.

- [https://doi.org/10.1016/s0005-7967\(02\)00259-0](https://doi.org/10.1016/s0005-7967(02)00259-0)
- Boss, P. (1977). A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father presence in families experiencing ambiguity of bounda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41-151.
<https://psycnet.apa.org/doi/10.2307/351070>
- Boss, P. (1999). *Ambiguous loss: Learning to live with unresolved grief*.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psycnet.apa.org/record/1999-08128-000>
- Boss, P. (2002). Ambiguous loss: Working with families of the missing, *Family Process*, 41(1), 14.
<https://doi.org/10.1111/j.1545-5300.2002.40102000014.x>
- Boss, P. (2004). Ambiguous loss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Reflections after 9/11.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3), 551-566.
<https://www.jstor.org/stable/3600212>
- Boss, P. (2006). *Loss, trauma, and resilience: Therapeutic work with ambiguous loss*. WW Norton & Company.
<https://www.amazon.com/Loss-Trauma-Resilience-Therapeutic-Ambiguous/dp/0393704491>
- Boss, P. (2007). Ambiguous Loss Theory: Challenges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56(2), 105-111.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7.00444.x>
- Boss, P. (2010). The trauma and complicated grief of ambiguous loss. *Pastoral Psychology*, 59(2), 137-145.
<https://psycnet.apa.org/doi/10.1007/s11089-009-0264-0>
- Boss, P. (2017). Families of the missing: Psychosocial effects and therapeutic approaches. *International Law Review. Red Cross*, 99, 519.
<https://doi.org/10.1017/S1816383118000140>
- Boss, P., Bryant, C. M., & Mancini, J. A. (2016). *Family stress management: A contextual approach* (3rd ed.). Sage Publications.
<https://us.sagepub.com/en-us/nam/family-stress-management/book243127>
- Boss, P., & Couden, B. (2002). Ambiguous loss from chronic physical illness: Clinical interventions with individuals, couples and famili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11), 1351-1360. <https://doi.org/10.1002/jclp.10083>
- Boss, P., Roos, S., & Harris, D. L. (2011). Grief in the midst of ambiguity and uncertainty: An exploration of ambiguous loss and chronic sorrow. In R. A. Neimeyer, D. L. Harris, H. R. Winokuer, G. F. Thornton, R. A. Neimeyer, D. L. Harris, H. R. Winokuer, & G. F. Thornton (Eds.), *Grief and bereavement in contemporary society: Bridging research and practice* (pp. 163-175).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edit/10.4324/9781003199762-16/grief-midst-ambiguity-uncertainty-pauline-boss-susan-roos-darcy-harris>
- Boss, P., Greenberg, J. (1984). Family boundary ambiguity: A new variable in family stress theory. *Family Process*, 23(4), 535-546.
<https://doi.org/10.1111/j.1545-5300.1984.00535.x>
- Boss, P., & Yeats, J. R. (2014). Ambiguous loss: a complicated type of grief when loved ones disappear. *Bereavement Care*, 33(2), 63-69.
<https://doi.org/10.1080/02682621.2014.933573>
- Boss, P., Greenberg, J. & Pearce-McCall, D. (1990). Measurement of boundary ambiguity

- in families. *Minnesota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593, 25.
<https://hdl.handle.net/11299/139543>
- Brown, T. A. (201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2nd ed.)*. Guilford Publications.
<https://www.cms.guilford.com/books/Confirmatory-Factor-Analysis-for-Applied-Research/Timothy-Brown/9781462515363/contents>
- Caron, W., Boss, P., & Mortimer, J. (1999). Family boundary ambiguity predicts Alzheimer's outcomes. *Psychiatry*, 62(4), 347-356.
<https://doi.org/10.1080/00332747.1999.11024882>
- Carroll, J. S., Olson, C. D., & Buckmiller, N. (2007). Family Boundary Ambiguity: A 30 Year Review of Theory, Research, and Measurement. *Family Relations*, 56(2), 210-230.
<https://psycnet.apa.org/doi/10.1111/j.1741-3729.2007.00453.x>
- Cho, H. N., & Choi, Y. S. (2013). An Effectiveness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with the Solution Focused Model for North Korean Married Women Defectors' Psychological Adaptation: Focusing on Depression and Guilty Feeling Caused by the Family Lo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2), 1327-1345.
<http://doi.org/10.15703/kjc.14.2.201304.1327>
- Cho, Y. A. (2012). The Experiences of Child Reunification among North Korean Wome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1), 197-222.
<http://www.riss.kr/link?id=A104096832>
- Cho, Y. A., & Jeon, W. T. (2005). A Qualitative Study of North Wome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n Lif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1), 17-35.
<http://www.riss.kr/link?id=A104177703>
- Cho, Y. A., Jeon, W. T., Yu, J. J., & Eom, J. (2005).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 3-year Follow-up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467-484.
<http://www.riss.kr/link?id=A104131524>
- De Vet, H. C., Adèr, H. J., Terwee, C. B., & Pouwer, F. (2005). Are factor analytical techniques used appropriately in the validation of health status questionnaires? A systematic review on the quality of factor analysis of the SF-36. *Quality of Life Research*, 14(5), 1203-1218.
<https://doi.org/10.1007/s11136-004-5742-3>
- Dekel, R., Levinstein, Y., Siegel, A., Fridkin, S., & Svetlitzky, V. (2016). Secondary traumatization of partners of war veterans: The role of boundary ambigu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1), 63-71.
<https://doi.org/10.1037/fam0000163>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
<https://psycnet.apa.org/doi/10.1037/1082-989X.4.3.272>
- Field, N. P., & Bonanno, G. A. (2001). The role of blame in adaptation in the first 5 years following the death of a spous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5), 764-781.
<https://doi.org/10.1177/00027640121956485>

- Gorsuch, R. L. (198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2nd ed.)*.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0203781098>
- Han, N., Lee, S., & Lee, J. (2017). The Differences of Acculturation Stress, Everyday Discrimination, Social Support from North/South Korean according to Acculturation Clusters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1*(2), 77-100.
<http://doi.org/10.21193/kjspp.2017.31.2.005>
- Heeke, C., Stammel, N., & Knaevelsrud, C. (2015). When hope and grief intersect: rates and risks of prolonged grief disorder among bereaved individuals and relatives of disappeared persons in Colombi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73*, 59-64.
<https://doi.org/10.1016/j.jad.2014.10.038>
- Hollander, T. (2016). Ambiguous loss and complicated grief: Understanding the grief of parents of the disappeared in Northern Uganda.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8*(3), 294-307.
<https://doi.org/10.1111/jftr.12153>
- Hong, S., Malik, M. L.,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Huang, M., & Habermas, T. (2019). The ambiguity of loss affects some, but not all autobiographical memories: redemption and contamination, agency and communion. *Memory, 27*(10), 1352-1361.
<http://dx.doi.org/10.1080/09658211.2019.1655579>
- Hwang, S. H. (2010).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Cognitions between Prolonged Grief Symptom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fter Berea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ahng, S. (201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kert-type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079-1100.
<http://doi.org/10.15842/kjcp.2015.34.4.010>
- Jeoung, H. S. (2015). *Development of the Korean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preliminary investig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Jung, Y. J., & Choi, B. (2017). Effects of the length of stay in transit country and forcible repatriation experience on the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resettled in South Korea: BPSI-NKR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2*(1), 47-67.
<http://doi.org/10.18205/kpa.2017.22.1.003>
- Jung, J. A., Son, Y. C., & Lee, J. H. (2013). A Study on Defecting Motive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Unification Policy Studies, 22*(2), 215~248.
<http://www.riss.kr/link?id=A103977641>
- Kaiser, H. F. (1961). A note on guttman's lower bound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1. *British Journal of Statistical Psychology, 14*(1),

- 1-2.
<https://doi.org/10.1111/j.2044-8317.1961.tb00061.x>
- Kaplan, L., & Boss, P. (1999). Depressive symptoms among spousal caregivers of institutionalized mates with Alzheimer's: Boundary ambiguity and mastery as predictors. *Family Process, 38*(1), 85-103.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9.00085.x>
- Kaplan, M. A., Foelsch, P. A., Heller, N. R., Nye, C., & Aquino, G. (2015). Boundary Ambigu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mplications for Treatment for Adolescent Girls in Foster Care.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8*(5), 366-381.
<https://doi.org/10.1080/10522158.2015.1101729>
- Kim, K. A., & Chang, H. (2020). Association between Ambiguous Loss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n North Korean Defector Mother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1-31.
<http://doi.org/10.35574/KJDP.2020.6.33.2.1>
- Kim, K. A., Chang, H., Jun, J. Y., & Hong, J. P. (2019).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Ambiguous Loss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8*(4), 699-735.
<http://doi.org/10.22257/kjp.2019.12.38.4.699>
- Kim, K., Park, J., & Gim, W. S. (201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tinuing Bonds Scal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2*(2), 263-283.
<http://www.riss.kr/link?id=A103647787>
- Kim, D., & Yi, S. H. (2017). Parental Loss and Social Adaptation of the Unaccompani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4*(7), 111-140.
<https://doi.org/10.21509/KJYS.2017.06.24.7.111>
- Kim, Y. H., Jeon, W. T., & Cho, Y. A. (2010).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Recent Migrant North Koreans: A Focus on 2007 Entrants. *Unification Policy Studies, 19*(2), 141-174.
<http://www.riss.kr/link?id=A103977731>
- Kim, T. K., & Jung, E. E. (2012). Posttraumatic Growth and acculturation according to traumatic experience and intentional rumin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37*(2), 147-173.
<http://www.riss.kr/link?id=A99561861>
- Kim, H. J., Song, H. W., Lee, Y. J., & Song, I. H. (2021). Factors Affecting Complicated Grief of Those Who Experienced Bereavemen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1*(3), 75-91.
<https://doi.org/10.15709/hswr.2021.41.3.75>
- Kim, H. K., & Shin, H. (2010). Psychological symptoms before and after the settlemen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of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4), 707-724.
<http://www.riss.kr/link?id=A104515706>
- Kline, P. (1979). *Psychometrics and psychology*. Academic Press.
<https://catalogue.nla.gov.au/Record/261834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Guilford Press.
<https://psycnet.apa.org/record/2010-18801-000>
- Knapp, T. R. (1991). Focus on psychometrics. Coefficient alpha: conceptualizations and anomali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4(6), 457-460.
<https://doi.org/10.1002/nur.4770140610>
- LeBlanc, N. J., Simon, N. M., Reynolds III, C. F., Shear, M. K., Skritskaya, N., & Zisook, S. (2019). Relationship Between Complicated Grief and Depression: Relevance, *Etiological Mechanisms, and Implications*. In *Neurobiology of Depression*(pp.231-239): Elsevier.
<https://doi.org/10.1016/B978-0-12-813333-0.00020-2>
- Lee, S. M. (2010). A review of CEFA software: 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10(1), 95-103.
<https://doi.org/10.1080/15305050903537251>
- Lee, I. S., & Jeon, J. H. (2016). Effects of Parenting Stress in North Korean Refugee Fathers on Their Parenting Behavior.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2(3), 182-189.
<http://doi.org/10.4094/chnr.2016.22.3.182>
- Lee, S., Youn, C. Y., Lee, M., & Jung, S. (201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How has it Changed?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1), 217-255.
<http://doi.org/10.22257/kjp.2016.03.35.1.217>
- Lenferink, L. I., de Keijser, J., Wessel, I., & Boelen, P. A.(2018).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of psychological symptoms among relatives of missing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11(3), 311-324.
<https://doi.org/10.1007/s41811-018-0024-y>
- Lenferink, L. I., Wessel, I., & Boelen, P. A. (2018). Exploration of the associations between responses to affective states and psychopathology in two samples of people confronted with the loss of a loved one.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6(2), 108-115.
<https://doi.org/10.1097/nmd.0000000000000781>
- Lenferink, L. I., Wessel, I., de Keijser, J., & Boelen, P. A. (2016).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for psychopathology in relatives of missing persons: study protocol for a pilot randomised controlled trial. *Pilot Feasibility Stud*, 2, 19.
<https://pilotfeasibilitystudies.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0814-016-0055-1>
-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
<https://psycnet.apa.org/doi/10.1037/1082-989X.4.1.84>
- Madden-Derdich, D. A., Leonard, S. A., & Christopher, F. S. (1999). Boundary ambiguity and coparental conflict after divorce: An empirical test of a family systems model of the divorce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8-598.
<https://psycnet.apa.org/doi/10.2307/353562>
- McLain, D. L. (1993). The MSTAT-I: A new measure of an individual's tolerance for ambigu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1), 183-189.
<https://doi.org/10.1177/0013164493053001020>

- McLain, D. L. (2009). Evidence of the Properties of an Ambiguity Tolerance Measure: The Multiple Stimulus Types Ambiguity Tolerance Scale - II (MSTAT - II). *Psychological Reports, 105*(3), 975-988.
<https://doi.org/10.2466/PRO.105.3.975-988>
- Miller, A., Hess, J. M., Bybee, D., & Goodkind, J. R. (2018). Understanding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family separation for refugee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8*(1), 26.
<https://doi.org/10.1037/ort0000272>
- Ministry of Unification.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ntered the south.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 Moon, S. (2009).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kjisa.
- Mu, P.-F., Kuo, H.-C., & Chang, K.-P. (2005). Boundary ambiguity, coping patterns and depression in mothers caring for children with epilepsy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2*(3), 273-282.
<https://doi.org/10.1016/j.ijnurstu.2004.07.002>
- Mu, P.-F., Wong, T.-T., Chang, K.-P., & Kwan, S.-Y. (2001). Predictors of maternal depression for families having a child with epilepsy. *Th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JNR, 9*(4), 116-126.
<https://pubmed.ncbi.nlm.nih.gov/11789131/>
- Mu, P. F., & Chang, K. P. (2010). The effectiveness of a programme of enhancing resiliency by reducing family boundary ambiguity among children with epileps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9*(9~10), 1443-1453.
<https://doi.org/10.1111/j.1365-2702.2009.03075.x>
- O'Brien, M. (2007). Ambiguous los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56*(2), 135-146.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7.00447.x>
- Park, S. J., Lee, S. H., Jun, J. Y., Lee, T., Han, J. M., Ahn, M. H., & Hong, J. P. (2015).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North 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NK). *Anxiety and Mood, 11*(1), 54-60.
<http://www.riss.kr/link?id=A100815225>
- Peterson, D. J., & Christensen, D. H. (2002). Factors predictive of boundary ambiguity after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7*(3-4), 19-40.
https://psycnet.apa.org/doi/10.1300/J087v37n03_02
- Preacher, K. J., & MacCallum, R. C. (2003). Repairing Tom Swift's electric factor analysis machine. *Understanding statistics: Statistical Issues in Psychology,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2*(1), 13-43.
http://dx.doi.org/10.1207/S15328031US0201_02
- Prigerson, H. G., Horowitz, M. J., Jacobs, S. C., Parkes, C. M., Aslan, M., Goodkin, K., & Neimeyer, R. A. (2009). Prolonged grief disorder: Psychometric validation of criteria proposed for DSM-V and ICD-11. *PLOS Med, 6*(8).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12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enner, A., Jäckle, D., Nagl, M., Plexnies, A., Röhr, S., Löbner, M., . . . Riedel-Heller, S. (2021). Traumatized Syrian Refugees with Ambiguous Loss: Predictors of Mental Di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8), 3865.
<https://doi.org/10.3390/ijerph18083865>
- Rhee, Y. S., Ku, H. W., & Han, I. Y. (2011). Systematic Reviews of North Korean Refugees: Women`s distinguishable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3(2), 147-194.
<http://www.riss.kr/link?id=A101892351>
- Seglem, K. B., Oppedal, B., & Raeder, S. (2011).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resettled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4(2), 457-464.
<https://doi.org/10.1111/j.1467-9450.2011.00883.x>
- Shear, M. K., Simon, N., Wall, M., Zisook, S., Neimeyer, R., Duan, N., Ghesquiere, A. (2011). Complicated grief and related bereavement issues for DSM-5. *Depression and Anxiety*, 28(2), 103-117.
<https://doi.org/10.1002/da.20780>
- Shin, J., Kim, S. H., & Lee, D. H.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rolonged Grief Symptoms by Expectedness of Death: Mediating Effects of Post-traumatic Negative Cognitions,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1), 185-215.
<http://doi.org/10.23844/kjcp.2019.02.31.1.185>
- Stevens, J. P. (201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Routledge.
<https://www.routledge.com/Applied-Multivariate-Statistics-for-the-Social-Sciences-Analyses-with-SAS/Pituch-Stevens/p/book/9780415836661>
- Stroebe, M., Folkman, S., Hansson, R. O., & Schut, H. (2006). The prediction of bereavement outcome: Development of an integrative risk factor framework. *Social Science & Medicine*, 63(9), 2440-2451.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6.06.012>
- Stroebe, M., & Schut, H. (2005). To continue or relinquish bonds: A review of consequences for the bereaved. *Death Studies*, 29(6), 477-494.
<https://doi.org/10.1080/07481180590962659>
- Stroebe, M., Schut, H., & Boerner, K. (2010). Continuing bonds in adaptation to bereavement: Towar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59-268.
<https://doi.org/10.1016/j.cpr.2009.11.007>
- Terwee, C. B., Mokkink, L. B., Knol, D. L., Ostelo, R. W., Bouter, L. M., & de Vet, H. C. (2012). Rating the methodological quality in systematic reviews of studies on measurement properties: a scoring system for the COSMIN checklist. *Quality of Life Research*, 21(4), 651-657.
<https://doi.org/10.1007/s11136-011-9960-1>
- Thomas, P., Clément, J. P., Hazif-Thomas, C., & Léger, J. M. (2001). Family, Alzheimer`s disease and negative symptom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6(2), 192-202.

- [https://doi.org/10.1002/1099-1166\(200102\)16:2%3C192::AID-GPS301%3E3.0.CO;2-Y](https://doi.org/10.1002/1099-1166(200102)16:2%3C192::AID-GPS301%3E3.0.CO;2-Y)
1차원고접수 : 2022. 02. 07.
2차원고접수 : 2022. 05. 24.
3차원고접수 : 2022. 08. 08.
최종게재결정 : 2022. 09. 11.
- Yoon, I. J., Park, Y. H., Yoon, Y. S., Chang, H. K., & Lim, I. S. (2007).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and Changes in Family Relation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2(2), 89-108.
<http://www.riss.kr/link?id=A75054469>

Assessing Ambiguous Loss: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Boundary Ambiguity Sca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BAS-NK)

Kyong Ah Kim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NK) defectors who experienced family separation using the construct of ambiguous loss and propose a reliable and valid scale to measure it. To achieve this aim, the Boundary Ambiguity Scale (BAS), which has been used to assess various types of loss in previous studies, was translated and adapted into Korean to develop BAS-NK in subsequent steps. First, the adapted questions on the original BAS scale were evaluated by a preliminary online questionnaire-based on the appropriatene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N=102) living in situations of ambiguous loss. Next, in the main study, a one-on-one in-person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new sample (N=100), and analyses involved item selection,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BAS-NK consisting of a total of 15 items evidenced acceptable internal consistency, and two factors (i.e., perceived ambiguity about loss, and emotional/relational preoccupation with the object of loss) emerged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total score of BAS-NK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cores of depression, complicated grief, and continuing bonds. In addition, the two factors of the BAS-NK demonstrated differentiated relationships to depression and complicated grief. Lastly,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The current study suggests a preliminary scale to measure the ambiguous los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Keywords : *Ambiguous Loss, North Korean Defectors, Boundary Ambiguity Sca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BAS-NK), Scale Validation, Factor Analysis*